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수부
 논문제목 완관절의 류마티스 관절염 진행 방지에 대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장기 효용성
 영문제목 **Long term efficacy of arthroscopic synovectomy to prevent progression of rheumatoid wrist**
 발 표 자 이근호 책임저자 박민종
 저 자 이현일,고경환,이근호,박민종
 기 관 명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, 서울의료원

서론 : 완관절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히 침범되는 관절로 최근에 도입된 관절경적 수기를 통하여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활액막의 절제가 가능하다. 그러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장기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장기 임상 및 방사선학적 추시 결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완관절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히 침범되는 관절로 최근에 도입된 관절경적 수기를 통하여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활액막의 절제가 가능하다. 그러나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장기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의 장기 임상 및 방사선학적 추시 결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결과 : 수술전 pVAS는 6.3(2~9.5)에서 수술후 1.4(0~6)로 감소하였다. Mayo wrist score는 수술전 평균49.1(5~70)에서 수술후 72.9(35.0~100.0)으로 호전되었다. 환자의 완관절 상태를 임상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임상적 관해가 41례(70.7%), 임상적 실패가 12례(20.7%)였다. 40례에서 X-ray의 장기 추시(평균 6.5년[2~11.9])가 가능하였고 Larsen stage는 수술전 평균 2.2기(1.0~4.5)에서 수술후 3.3기(1.0~5.0)로 증가하였다. 1기 이상의 진행을 보인 환자는 27례(67.5%)이고 2기 이상의 진행을 보인 환자는 8례(20.0%)였다. 환자의 수술 만족도 VAS는 평균 8.1이었다. 예후 인자 분석 결과 수술전 Larsen stage나 수술 후 류마티스 관절염약의 복용 중지 등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.

결론 : 종합해볼 때 70.7%의 환자에서 임상적인 관해를 보였으며 수술전 방사선학적 병기가 높더라도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았다. 그러나 전반적인 양호한 임상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학적으로 1기 이상의 진행을 보인 환자가 67.5%에서 관찰되었다.

acknowledgment :

류마티스 관절염, 완관절, 관절경, 활액막 절제술